



‘중국 수영 간판’ 쑨양이 20일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7분48초36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마린 보이’ 박태환이 없는 아시안게임은 쑨양에게 너무나 쉬운 무대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AP뉴시스

AG수영 독주 中 쑨양 ‘도쿄 플랜’ 정상 가동

중국 수영 간판 쑨양(27)에게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은 독무대나 다름이 없다. 오랜 라이벌 ‘마린 보이’ 박태환(29)도, 별다른 경쟁자도 없다.

쑨양이 자신의 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 19일 자유형 200m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뒤 20일 자유형 8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200m 우승은 쑨양에게 특별한 성과다. 2010광저우~2014인천대회 200m에서 모두 은메달에 그친 쑨양에겐 AG 첫 금메달이다. 동시에 AG·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0·400·1500m의 금메달을 모조리 수집하는 그랜드 슬램도 장식했다.

조국을 위해서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부상을 안고 있는 쑨양은 자유형 800m 경기와 같은 날 열린 4x200m 자유형 남자 계주에도 만행으로 나서 은메달을 따냈다. 중국의 자존심을 위해서였다. 그는 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초 정해진 팀 내부적으로 내가 계주에 출전하길 원했다”며 “의리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쑨양에게 AG는 ‘몸 풀기’에 가깝다. 은퇴 무대로 정해진 2020도쿄올림픽으로 가는 과정 중 일부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박태환이 컨디션 난조로 AG에 불참한 가운데 한결 여유롭게 개인 성적과 자신감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 쑨양 역시 “스피드만 강화된다면 도쿄올림픽 역시 희망적”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대회 첫 2관왕을 차지한 쑨양의 AG 금메달 사냥은 자유형 400·1500m에서도 이어진다.

서대경 기자 seody3062@donga.com

이경호 기자의 슬라맛 자카르타 | 일본 배드민턴 박주봉 감독의 메시지

“주축선수 한명이라도 남았어야...”

〈한국국가대표팀〉

“베테랑들 한꺼번에 대표팀 떠났다”
日 배드민턴 성공? 아직 금 남았다

남자 단체전 8강서 한국 3-0 완파
한국 서틀콕을 향한 ‘쓸쓸한 사회’



배드민턴 영웅 박주봉(54). 올림픽 금1·은1, 아시안게임 금3, 세계선수권 금5개를 수확하고 은퇴한 박주봉은 지도자로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역 은퇴 후 전 세계 스카우트 표적이 된 그는 종목 중추국 영국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에 이어 2004년부터 일본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

박 감독은 20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배드민턴 경기가 열린 겔로라 봉 카르노(GBK) 이스토라 경기장 선수대기실 앞에서 서 있었다. 일본 대표팀이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확정지은 직후였다. 일본이 AG 남자 단체전에서 4강 이상 성적을 올린 것은 1970년 방콕 대회 이후 처음이다.

일본 배드민턴은 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나뉜다. 이전에는 서틀콕 변방 국가였지만 이용대(요넥스)와 이효정이 대표팀을 떠난 이후 한국을 앞섰다. 세계 최강 중국과 맞설 정도로 강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날 박 감독은 웃지 않았다. 하필 8강 상대가 한국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3-0 완승을 거뒀다.

인터뷰를 청하자 정중한 표정으로 “일본 감독이라서... 먼저 다녀오겠다”며 다른 쪽을 바라봤다. 일본 기자 10여명이 있었다. 유창한 일본어로 쏟아지는 질문에 15분간 답한 박 감독은 다시 한국 취재진 앞에 선 뒤 먼저 말을 꺼냈다. “만나지 않았으면 했다. 만났다면 결승에서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젊은 선수들을 인상 깊게 봤다. 주축들이 한꺼번에 대표팀을 떠나서... 한 두 명이 라도 젊은 선수들을 이끌면 어땠을까, 선배로서 이런 마음이 든다.”

일본 배드민턴의 발전은 눈부시다. 한국이 금맥을 캐지 못한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일본은 여자복식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0도쿄올림픽에서도 배드민턴은 일본의 전략종목이다. 한국은 남녀 모두 세대교체를 하지만 전력이 약화됐다. 대형 선수도 나오지 않고 있다.



박주봉 일본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이 20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경기가 열린 겔로라 봉 카르노(GBK) 이스토라 경기장 선수 대기실 앞에서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박 감독은 일본의 발전 비결을 묻는 질문에 “국가대표 시스템이 잘 정착됐다. 1·2군으로 나뉘어 1년 동안 어떤 대회에 참가할지 스케줄을 확정하고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1·2군 코치만 9명이다. 전담 코치 시스템도 정착했다. 1년 스케줄을 확정하면 협회가 실업팀과 조율해 100% 지켜준다”고 덧붙혔다. 세계 최고인 박 감독의 기술·체력 훈련 노하우와 함께 대표팀 감독에 전권을 주고 전폭 지원하는 일본 시스템의 효율성이 느껴졌다.

빠듯한 스케줄 속에서도 한국기자들과 오랜 대화를 나눈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14년째인데 아직 일본 감독으로 AG 금메달이 없다. 금메달을 꼭 따고 싶다. 한국도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일본 국가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었지만 박주봉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러운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rush@donga.com

#슬라맛(Selamat)은 인도네시아어로 안녕, 행복, 평안을 바라는 따뜻한 말이다.

태극소녀 3총사 “골프 금맥 걱정마세요” 유해란·정윤지·임희정 금메달 각오 “인천AG 못 땀던 단체전 금 찾아올 것”

한국여자골프가 5회 연속 아시아 금빛 스윙에 나선다. ‘태극소녀 3총사’ 임희정(18·동광고 3학년)~정윤지(18·현일고 2학년)~유해란(17·송일고 2학년)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23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폰트 인다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골프 여자 개인전 및 단체전에 출격한다.

한국여자골프는 역대 AG에서 금맥과 늘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 개인전은 여자골프가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0년 베이징 대회에서 원재숙이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유소연(2006년 도하)~김현수(2010년 광저우)~박결(2014 인천)이 3회 연속 금맥을 이었다. 단체전 역시 1990년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2002년 부산과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처럼 화려한 금맥을 자랑하는 태극낭자 군단의 대(代)를 잇는 주인공은 임희정과 정윤지, 유해란으로 구성된 여고생 3총사다. 인도네시아 현지는 물론 진천선수촌



여자 골프 국가대표 유해란과 정윤지, 임희정(왼쪽부터)이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개인전 및 단체전에 출격한다. 태극마크 유니폼을 입은 3총사가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골프협회

과 제주도, 강원도를 돌며 수개월 전지훈련을 마친 이들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4년 전 안방에서 단체전 은메달에 머물렀는데 이번엔 반드시 금메달을 되찾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주장을 맡고 있는 임희정은 “아직 2014년 인천 대회가 생생하다. 박결 언니가 마지막 챔피언 퍼트를 넣는 장면을 지켜봤다. 소름이 돋았다. 4년 전 희열을 재

연하고 싶다”면서 “우리 모두 자체 선발전을 통해 어렵게 태극마크를 달았다. 국가를 대표해 꼭 좋은 성적을 내서 돌아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경주재단 출신으로 훗날 최경주와 박세리처럼 후배들을 위해 나눔과 기부 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정윤지의 다짐도 남다르다. 정윤지는 “단체전 성적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전 금메달도 따라오리라 믿는다. 다만 태극에서 ‘천재 소녀’라고 불리는 아타야 티티쿨(15)이 최대 적수다. 반드시 티티쿨을 넘어 두 개의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밝혔다.

경기감각을 다지기 위해 셋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8월 10~12일)에 출전하면서 의지를 다졌던 유해란은 “대회장인 폰트 인다 골프코스를 두 차례 다녀왔는데 잔디가 한국과는 많이 다르더라. 특히 그린 위잔디가 익숙지 않아 그동안 숏게임 연습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내가 왜 떴게?

귀여운 막내? 선배님 물 당번입니다



박치국

●박치국, 대표팀 막내 : 집안에서 막내는 부모님과 형,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하신 몸이지만 대표팀에서는 ‘물 당번’이다. 박치국(두산)은 1998년생으로 올레 스무살. 동갑내기 이정후(넥센)와 함께 대표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생일은 3월로 8월인 이정후보다 빠르지만 물 당번은 박치국이다. 투수들은 불펜이나 외야에서 따로 훈련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는 이번 대회 최고참인 정우람 큰형님과 같은 방을 쓸 예정이라며 “자다가 코라도 골까봐 걱정”이란다. 누리꾼들 반응은 “왜 이리 귀엽냐” 일색. 그래도 요즘엔 생수 담은 아이스박스잖니. 예전엔 진짜 수박만한 물 주전자 들고 날랐단다.

과거소환에 셀프디스까지



최용수

●해설대위 최용수, 화려한 입담 :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이 해설자 데뷔전을 멋지게 해치웠다. 최 전 감독은 20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축구

조별리그 최종3차전 경기에서 해설자로 나섰다. 경기 시작 전 “신박한 해설을 선보이겠다”며 큰소리로 쳤다. 과연 최 전 감독은 경기 내내 화려한 입담을 과시했다. 전반 황인범이 강하게 찬 볼이 골대 위를 넘어가자 “제가 좋아하는 황선홍 선배의 슈팅을 보는 것 같다”고 했고, 후반 황희찬의 볼이 역시 골대 위로 날아가자 “옛날 미국전에서의 나를 보는 것 같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과거소환에 셀프디스까지. 고구마 경기에 고마운 사이다였다. 그나마나 황선홍은 의문의 1패?

“색깔 관계없이 특채 기회”



우유 태극권 금메달 껌

●인도네시아, 메달리스트 공무원 특채 :아시안게임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달달하고 큼직한 당근을 내놨다. 모하메드 사프루

딘 선수단 단장은 20일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메달리스트들에게 공무원, 군경 특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유 여자 태극권에서 린드스웰 껌이 금메달을 따자 “그녀는 이미 공무원이 됐다”고도 했다. ‘공시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에겐 그저 부러운 남의 나라 일로 गुना.

맨발의 금메달리스트



김태훈

●김태훈 시상식, 도 장관의 감탄 : 20일 자카르타 JC C 플레나리홀에서 열린 남자 태권도 58kg이하급 시상식. 금메달의 주인공은 한국의 ‘발차기 왕’ 김태훈(24·수원시청)이었다. 김태훈은 은메달, 동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이 운동화를 신은 것과 달리 맨발로 시상대에 올랐고 이날 시상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시인의 눈’을 가진 도 장관은 시상식 후 김태훈의 울통불통 굳은살이 박힌 발을 어루만지며 안쓰러워했다. 결승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선수를 24:6으로 압도하며 2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김태훈. 그대가 진정한 맨발의 청춘이요.